그날이 3월 30일 입니다. 그날 전화통화로 계약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내용증명 2번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계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위의 내용이 있어서였으며 그 내용은 이미 이화실업 이혜경 실장에게 알렸습니다. (그리고 더더군다나 이혜경 실장에게 임대료 40% 인하 요청은 한 적도 없습니다.) 그러나 임대료 인하가 불가한 것 같아서 임대료 조정 없이 그냥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.

그 후에도 2021. 4.1. 과 2021.4.9.에 경사장님과 계약을 위한 만남을 계속 추진하셨으니 신규임차인과 계약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으로 간주되나 사전이 합의된 임대료 ₩4,000,000 대신 ₩5,000,000 으로 기재하고 임시 인하해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려함으로 계약이 원할히 성사되지 않던중 다른 업종의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.

힘든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해 주신점 잊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6개월이 넘는 영업금지 기간동안에도 사비를 털어 하루도 늦지 않게 입금 해 드린점 말씀드립니다.